

9월 21일 고승태홀에서 열린 졸업예정자 총장 초청리셉션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학우들이 행사를 끝낸 후 강우정 총장, 학과 교수진과 함께 복음전도자의 삶을 다짐하며 힘차게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 종소리 '와 '무생체 '의 축제 한마당

뚝성 한강공원에서 7개 종목 체육대회

2023 학년도 크리스천데이 및 체육대회가 드림총학생회 (회장 오동영) 주최로 10월 26~27일까지 교내와 뚝섬 한강공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 주제는 크리스천데이 '종소리'(종교개혁의 소리를 높이자)와 '무생체'(무조건,생각없이 즐기는,체육대회)로 각각 무진다.

학우들은 27일 (금) 오전 10시 뚝섬 한강공원 운동장에서 '무생체 '체육대회를 연다.대회는 흑팀 (성서,영보)과 백팀 (사복,컴소,간호)으로 나뉘어농구와 피구,계주,발야구,단체줄넘기,축구 그리고혼성계주 종목을 겨룬다. 각팀별 선수들은 벌써 팀웤을가다듬으며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지난해 경기 결과는흑팀이 완승하였다.백팀이 설욕전을 벼르고 있다.경품 추첨도 있다.상품은 아이패드와 에어팟 등 디지털

기기와 푸짐한 생활용품까지 다양하다.

이에 앞서 26일 (목)에는 종교개혁 506 주년 기념에배를 드린다. 설교는 성서대학교회 최정권 목사가전한다. 예배에 이어 교내는 축제의 장으로 돌변한다. CCM 부르기 최강자를 가리는 공연과 학우들의 관심이높은 외부 유명 아티스트 (?)의 초청 공연도 준비되어있다.

이날 또 학과별 전공 관련 세미나도 진행되는데 이를 위해 여러 외부강사가 초청되었다. 잔디밭과 주제광장 에서는 각학회별, 동아리별 부스가 설치되고 홍보와 함 께 다양한 이벤트, 게임, 식음료, 먹거리 장터도 풍성 하게 펼쳐진다. 외부 업체가 참여하는 개성있는 프리마 켓 장도 잔디밭 일대에 펼쳐져 시선을 끌게 된다.

# 1214/3/11

## 성경 사랑 (시 119:97-105)

개강 첫날 가장 먼저 시작되는 수업이 바이

블리딩 (BRC) 이다. 바이블리딩은 학기말까지 매일 아침 8 시에 성경을 읽는 수업으로 성서대학교와 잘 어울리는 수업이다. 성경은 한국성서대학교의 교과서 아닌가? 나도 2 학기에 학생들과 바이블리딩에 참여하는데 새로운기대감이 솟아난다. 시편 119 편은 성경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 시인은 주의 법을 어찌그리 사랑하는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고백한다 (97, 99 절). 사랑하면가까이하게 되고 늘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 시인은 주의 계명과 함께 하며 (98 절)주의 법도를 지킨다 (100 절), 그는 말씀을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

(101 절), 주의 말씀을 배우며 (102)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않는다.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라고 외친다(103).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말씀은 시인을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며(98 절) 모든 스승보다 명철하게 하며(99) 노인보다 명철하게 한다(100). 시인은 명철하게 되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다(104). 시인은 말씀의 유익을 깨닫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내 길에 빛이니이다"라며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다. 성경 사랑, 시편 119 편이 가르치는 최고의 교훈이다.



김현광 목사 (성서학과)

장현진 교수 등 12 명에 '잘 가르치는 교수賞' KBU-LC 모형 학습 수행 성공적인 결과



▲ 김주아(간호학과)교수가 수상하고 있다.

장현진 교수 (영유아보육학과) 등 12 명이 지난 26 일 학습자 중심 (Learner-Centered, 이하 LC) 의 수업을 설계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학습효과를 최대로 끌 어 올린 공로로 KBU 공로상 (잘 가르치는 교수賞)을 받았다. 12 명의 수상자는 기초 교양교육과 ▲ 이성아 ▲ 이슬기 교수, 성서학과 ▲ 유정선 ▲ 박성환 교수, 사복 ▲ 김 성경 ▲ 안정선 교수, 영보 ▲ 김정원 ▲ 장현진 교수, 컴소 ▲ 정해덕 교수, 간호 ▲ 최 은희 ▲ 고미숙 ▲ 김주아 교수이다.

이들은 2022-2 학기 혹은 2023-1 학기 기간 중 자신이 담당한 한 과목을 택하여 우 리 대학만의 교수학습모형인 KBU-LC 모형을 따라 수업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 교과목에 대한 평가는 실제적 과제, 자기 주도, 협력적 활동, 하이브리드 러 닝의 충실한 적용에 대하여 각 항목을 10 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거기에 학우들의 강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장현진 교수가 이번 평가에서 최고점 으로 교과목 평가는 40 점 만점에 34 점, 강의 평가는 2022-2 학기 평균 4.9235 점 을받았다.

강우정 총장은 2023 학년도를 시작하며 올해의 목표와 과제의 하나로 교수역량강화 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평가과 보상을 연계토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KBU-LC 모형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협동적인 작업으로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수행 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서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교수 · 학습 방법이다 . 교수학습센터 (센터장 윤혜진 )는 2020 년에 우리 대학의 수업운영을 분석하여 KBU-LC 모형을 연구 개발하였으며, 이와 연 계하여 1 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L.C. 티칭포트폴리오 개발 사업을 운영하 였다. 이 사업을 고도화하고자 2022 년에는 우리 대학의 5 개 전공과 일립교육원의 영 어 및 글쓰기 교과에 적용이 용이하도록 수정 , 보완하여 학과별 KBU-LC+ 모형을 제안 하였고, 모형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수상자의 명단과 적용 학과목은 다음과 같다.

◇기초교양 ▲ 이성아 (게임이론과 게이미피케이션) ▲ 이슬기 (사고와 표현)

◇성 서 ▲유정선(조직신학)

▲ 박성환 (예배와실제)

◇사 복 ▲ 김성경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김정원 (유아교과 교육론)

▲ 김주아 ( 아동간호 2)

▲ 안정선 (사회복지행정론)

▲ 장현진 (유아음악교육)

◇컴 소 ▲ 정해덕 (데이터베이스)

◇ 간 호 ▲ 최은희 (성인간호 3)

▲ 고미숙 ( 성인간호 2)



▲기초교양 이성아 게임이론과게이미피케이션



▲기초교양 이슬기 사고와 표현



◇영 보

▲ 성서 유정선 조직신학



▲ 성서 박성환 예배와 실제



▲ 사복 김성경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사복 안정선 사회복지행정론



▲ 영보 김정원 유아교과교육론



▲영보 장현진 유아음악교육



▲ 컴소 정해덕 데이터베이스



▲ 간호 최은희 성인간호 3



▲ 간호 고미숙 성인간호 2



▲ 간호 김주아 아동간호 2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자체진단보고서 제출 5 개 영역, 30 개 하부 평가 준거 우리 대학 모두 '충족' 보고 평가감사실(실장 임지영)은 13일, 2023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자체 진단보고서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제출하였다.이 보고서는 자 체진단 결과 우리 대학은 모든 항목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365 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대학의 실상을 보여주는 5 개의 영역 ' 대학이념 및 경영', '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 교원 및 교직원', ' 학생지원 및 시설', ' 대학 성과 및 사회적 책무 ' 와 30 개 하부 평가 준거로 우리 대학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 할 증빙용 파일 1886 개를 첨부하였다. 대교협은 우리 대학이 제출한 자체진단보고서를 근거로 5 명의 평가위원이 10 월 18~19 일까지 학교를 방문, 현장실사 과정을 갖는다.

대학평가인증위원회는 12월 27일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의 판정을 대학에 통보하게 된다.'인증'효력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 까지 5년간 유효하다.

평가감사실은 이번 자체진단보고서를 위해 지난 2 월부터 기획자문위원 6명, 집필위원 13명, 실무위원 15명이 보고서 작성에 머리를 맞댔다. 각 영역부문과 평가 준거지표에 맞춰 소그룹과 전체 참여 모임을 100회 이상 진행하며 철저히 준비해 왔다.

2023 대학혁신사업 1 차년도 연차 평가 결과 '교육혁신전략' C, '자체 성과관리' B '정량지표' 1.53

인센티브로 4억8천6백만원추가지원

2023 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1 유형) 1 차년도 연차 평가 결과 1 영역 '교육혁신 전략'은 C등급, 2 영역 '자체 성과관리'에서는 B등급을 받았다. 정량지표 항목(유지충원율)은 103.39%로 표준점수(가중치)1.53을 받았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 대학은 기존사업비 18 억 4 천 2 백만 원에 추가 인센티브로 4 억 8 천 6 백만 원을 더 받게 되어 혁신사업 2 차년도 사업비 총액은 23 억 2 천 8 백 만원이 되었다. 이번 연차 평가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좋은 평가를 받은 유지충원율 영역인데 가장 큰 공신은 재학생들이다. 드림총학생회와 학과별 학회가 중심이 되어 전체 학우들이 ' 휴학, 중도탈락 가급적 자제 ', ' 복학 적극 권유 ' 등 자체적인 노력이 이처럼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우리 대학에 대한 평가단의 종합적인 평가의견은 다소 부정적이다. 한마디로 "전체적인 사업의 환류절차가 논리적 정합성을 이루도록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2 차년도 계획에 반영함으로 적절하게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역별 평가에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 · 보완할 점을 각각 지적하고 있다 . 1 영역 ' 교육 선진 전략' 의 우수한 점으로 데이터기반 NSLB 진로교육과정 개발운영 , 공동체 인성교육 개편 , 일립교양교육의 재구조화를 통해 핵심역량 제고에 바람직한 점 등을 들었다 . 개선 · 보완사항으로는 대학발전계획과 혁신계획 세부사업의 상관관계가 구체적이 아닌 점과 교육혁신 담당 조직 , 규정 체계화 등 적정 추진체계 부재를 지적하였다. 2 영역 ' 자체 성과관리 ' 에서 우수한 점은 자체성과지표가 대학의 특성을 잘 담아냈고 혁신전략 및 프로그램 내용과 정합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 반면 개선 · 보완 사항으로는 목표 값을 도전적으로 조정할 것 , 교육혁신지수에 교수법과 강의평가 내용을 포함시킬 것과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경만 전략기획실장은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2 차 년도 혁신사업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혁신사업을 위해 밤낮없이 수고해 온 성서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불신 가족 전도'에 24명 기도와 전도 요청



▲ 가족구원캠페인 홍보용 포스터

올해 「전도의 해」 2 학기 목표는 ' 믿지 않는 가족 구원 ' 이다. 학교 전체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교목실은 학우들에게 믿지 않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 고 전도해 주기 원하는 학우들의 신청을 받았는데 9월 13일 (수)과 20일 (수) 에 모두 24 명이 응하였다.

9월 13일 수요일 채플에서 불신가정 출신인 송성은 CCC 간사가 자신의 아버지 전도 경험을 진솔하게 간증하여 감동을 주었다 . 그의 아버지는 아직도 불신자이지 만 그는 오늘도 기도와 자신의 삶을 통해 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 일 CCC 박민 석 간사도 불신가정에서 성장했지만 할머니를 통해 아버지까지 주님을 영접하며 가족 모두 믿음을 갖게 되었다며 청년의 때에 구주를 영접해야 하는 의미와 기쁨을 간증해 주었다.

'기도쪽지'로도 기도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매일'기도쪽지'에 2명 학우 의 이름 ( 가명 ) 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 어머니 , 남편 , 자녀 등을 적어 놓고 이를 위하여 학교 전체가 그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부터 는 매주 수요일 채플 후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회 (총 10회)'가 교회음악실습 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신청 학우들은 물론 일반 학우들과 교직원들이 자리를 꽉 메우고 ' 믿지 않는 가족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해 달라 ' 며 뜨겁게 기도하 고있다.

또 오는 11월 14(화)에는 '가족 전도 대상자 초청 리셉션'을 갖고 애찬을 나 누며 복음을 직접 제시할 예정이다.

## 졸업예정자 총장 초청 리셉션

구원의 확신과 「복음전도자」의 삶 결단



▲ 강우정 총장이 간호학과 졸업예정자에게 권면하고 있다.

2023 년도 졸업예정자 총장 초청 리셉션이 9월 18(월) 일부터 22(금) 일까 지 밀알관 고승태홀에서 개최되었다. 리셉션은 첫날 성서학과 (18일)를 시작으 로 영유아보육학과 (19 일 ), 사회복지학과 (20 일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21 일 ), 간호학과 (22 일 ) 순이었다.

강우정 총장은 권면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나요?" 라고 첫 질문을 던지고 이어 "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전도자」로 살 겠다는 결단을 하였나요 ?"라고 물었다 . 첫 번 질문에는 큰 소리로 '예'라고 대 답하였으나 두 번째 질문에는 다소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다 . 강 총장은 지금은 확 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학우들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확신을 갖게 할 날이 꼭 있을 것이라며 위로하였다.

강 총장은 「복음전도자」의 ' 복음 ' 과 ' 전도 ' 에 대한 정의를 기억하라고 권하 고 ' 복음 ' 의 정의는 고린도전서 15 장 2-4 절에 나와 있고 , ' 전도 ' 의 정의는 마 태복음 5 장 14-16 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고 권하였다 . 그리고 「복음전도자」 로서의 삶은 말씀, 기도, 전도, 섬김으로 형성,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권경만 전략 기획실장의 사회로 1 부 개회 및 케잌 커팅과 만찬, 2 부 후배들 순서, 학과장 인사말, 간증, 총장 권면과 성서인의 다짐으로 진행되었다.

## 교내연구 A 형 양단아 교수 등 6 명 선정

1 차 11 명, 추가 6 명 도합 17 명이 도전 교수들의 연구 열기 진작, 교수역량 강화 2023 학년도 교내연구 A 형 추가 모집에 양단아 교수 ( 컴소 ) 등 6 명의 연구 논문 계획서가 선정 승인 되었다.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돕기 위한 교내연구 모집은 1 차로 지난 1월 31일 마감하였는데 13명이 신청하여 11명이 (KCl 8 편, SCl 급 3 편)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금년도 책정된 예산과 계획된 인원에 미치지 못하여 추가 모집하게 되었다. 2023 학년도 교내연구비 A 형 예산은 총 5천 7백만 원이다. 1차 연구비는 11명에게 3천 9백만 원이 배정되었으며, 추가연구비는 6명에 1천 8백만 원을 배정하였다.

추가 선정된 교수와 논문명 (KCI급)은 다음과 같다.

### ▲ 양단아 교수 ( 컴소 )

고품질 및 객체 인식 향상을 위한 GAN 기반 이미지 처리기법

### ▲ 홍소윤 교수 ( 간호 )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가정폭력 외상 경험

## ▲ 김주아 교수 ( 간호 )

정보화기기 활용 역량 수준에 따른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

### ▲ 강규성 교수 (성서)

구약의 관점에서 본 제의적 예배와 토라 실천의 상관관계 연구

### ▲ 김성경 교수 (사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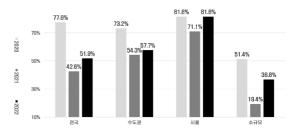
논리 모형을 통한 희망 디딤돌 사업 ( 자립지원통합모델 ) 의 개발 및 분석

### ▲ 이슬기 교수 (기초)

생성 인공지능 활용 글쓰기에서 대학생 필자의 질문 생성 양상 분석

우리 대학의 2022 학년도 교내연구비는 183 만 원으로 전국 4 년제 대학 대비 상위 51.9% 에 랭크 되고 있다. 지난 3 년 동안 우리 대학의 교내연구비 수준은 비교 집단별로 다음과 같다. (2023 년 8 월 공시자료 기준)

	우리대학교내연구비		전국4년제대학	수도권	서울	소규모
	2020년	90만원	77.6%	73.2% 81.6%		51.4%
	2021년	215만원	42.6%	54.3%	71.1%	19.4%
	2022년	183만원	51.9%	57.7%	81.6%	36.8%



## 인공지능학과 (AI) 설치추진단 위원 임명

단장 강규성 부총장 실무추진위원장 최선희 교수 우리 대학이 인공지능학 (AI) 과 신설을 위한 설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해에 이어 또 다시 학과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단장 강규성 부총장, 자문에 송희경 교수 ( 컴소 초빙 ) 를 새롭게 임명하였다. 실무추진위원장에 최선희 교수 ( 사복 ), 총괄위원 임지영 교수 ( 컴소 ), 위원에 권경만 전략기획실장을 임명했다. 김병수학업지속지원팀장이 위원 겸 간사로 활동하게 된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인공지능학과 (AI) 설치를 신청하였으나 인가받지 못했다. 지난 해는 첨단학과 신설 제 1 요건인 전임 교원확보율 100% (52 명 ) 를 충족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지난 9월 1일 현재 이 기준을 충족, 학과 신설 요건을 갖추었다.



▲ 단장 강규성 부<del>총</del>장



▲ 자 문 송희경 교수 ( 컴소 )



▲ 실무추진위원장 최선희 교수 ( 사복 )



▲ 총괄위원 임지영 교수 ( 컴소 )



▲ 위원 권경만 전략기획실장



▲ 위원겸 간사 김병수 학업지속지원팀장

재학생 / 학부모 교육만족도 조사 6 일 마감 대학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응답 기대 교육수요자의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성과관리실 (실장 김희수 교수) 과 평가감사실 (실장 임지영 교수) 이 분담해 실시하고 있다. 재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는 성과관리실에서, 졸업생과 산업체는 평가감사실에서 조사한다.

이 만족도 조사는 대학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참여 학생의 학습과정 및 대학 생활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성과를 점검하고, 대학 교육의 질과 강점 약점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대학에 대한 대외 평가는 일상화되고 있으며 중심에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자리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 따라서 이번 만족 도 조사에 학생 , 학부모 , 동문 ,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응답이 기대되 는 것이다 .

재학생 / 학부모 교육만족도 조사는 10월 6일까지며 졸업생과 산업체는 11월 17일까지다. 재학생은 웹기반 https://ainavi.bible.ac.kr) 설문 조사이며 학부모, 졸업생, 산업체 관계자는 구글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면 된다. 4학년 졸업예정자는 만족도 조사와 함께 핵심역량 조사에도 참여를 바라고 있다. 재학생 참여자에게는 1만 마일리지를 주고 4학년 졸업예정자는 교육만족도조사와 핵심역량조사 모두 참여시 스타벅스 1만 원권을 제공한다.

2 학기 신설 동아리 8 개 봉사, 힙합 비트, 야구 관람 등 이번 2 학기 동아리 8 개가 신설, 회원 112 명이 참여하고 있다. 신설된 동아리는 '맛모'(맛있는 운동모임, 24 명), 'BFI'(야구 관람, 19 명), 'build-up'(밴드부, 13 명), '어니스텝'(봉사, 10 명) 등이다. 스포츠 3, 복음과 음악 각 2, 봉사 1 곳이다.

힙합 비트 배우기가 목적인 Charis(은혜) 동아리는 아티스트와 비트, 장르 분석 및 가사 작성법과 랩 하기 등 16 회의 모임을 통해 음악적 다양성을 공유하며 친교와 학교 적응력 등을 높여 줄 것으로 보인다. 연구년을 마치고 돌아온 김웅기(성서)교수가 8개 동아리 가운데 4개(맛모,탁탁이,열기구,힙합)를 지도한다.

교내에 개설된 31 개 동아리 중 회원이 가장 많은 동아리는 '코이나 '(간호학과 해외 문화 배우)로 64 명의 회원이 있다. 전체 613 명이 동아리에서 활동중이다.

2024 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8.03:1 간호학과 20.87:1 로 가장 치열 우리 대학의 2024 학년도 수시모집은 205 명 모집 정원에 1579 명이 지원하여 8.03:1 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8.08:1(1600 명) 과 비교해 소폭 (-0.05) 하락하였다.

각 학과별 정원 내 지원은 간호학과 30 명 모집에 626 명이 지원하며 20.87:1 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뒤이어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가 30 명 정원에 279 명, 9.30:1 을, 사회복지학과는 35 명 모집에 274 명이 지원, 7.82:1 을 나타냈다. 영 유아보육학과는 35 명에 192 명이 지원, 5.49:1 을 보였고 성서학과의 경우는 전년 지원자 (64 명) 보다 10 명 증가한 74 명이 접수하며 1.48:1 로 소폭 증가하는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유형별 전형은 간호학과 목회자추천 (5 명 모집)에 132 명이 지원하며 26.4:1 을 기록,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떠올랐다.

신지수 입학관리팀장은 "올해 고 3 졸업생이 전년도보다 1 만 5 천여명 감소하여 고전이 예상되었으니 비교적 선전하였다고 본다"이어서 "동문과 재학생 그리고 이 번에 새로 임명된 학과별 입시코디네이터의 노력이 더해져 예년과 비슷한 결과를 거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면접은 오는 10 월 4~5일, 합격 발표는 11 월 3일이다.



코코스 9 월호에 ' 갈멜관을 증축한다 ' 에 경성교회 (담임 박종걸 목사) 가 1 천 만 원을 증축기금으로 후원한다고 약속, 갈멜관 증축 후원 1 호가 되었다. 상계 3 동 희망촌에 있는 경성교회는 교인이 100 여 명정도인 교회임에도 교회의 건물이나, 교세에 연연하지 않고 교회 재정의 50% 를 이웃 구제와 선교, 장학, 제자 훈련 등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로 알려져

# 갈멜관 증축기금 제 1 호 후원자 담임목사 박종걸

# **경성교회** 1천만원약정

## 인공지능학과와 평생교육원의 외연 확장 공간 필요

있다. 박종걸 목사는 휴대폰도 없고 자신 의 자동차도 없는 2 무 (無)의 강직한 목 회자이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 대학 재학 생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보내 오는 선한 사역을 꾸준히 실천해주고 있다.

미국 시카고에서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 는 동문 조영자 (12 회 ) 동문이 미화 9 백 달러 (110 만원) 를 증축기금으로 후원했 다 . 조영자 동문은 이에 앞서 대학 일반후 원금으로 1 만달러 (1 천 3 백 18 만원) 를 후원한 바 있다.

갈멜관 증축은 인공지능학과의 신설 (예 정 ) 과 평생교육원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 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외 협력팀에서는 갈멜관 증축을 위한 자금으 로 약 60 여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가 운데 최소 10 억 원은 후원과 헌금으로 마 련한다는 계획이다.

갈멜관 증축기금 후원은 예금주 한국복 음주의학원, 하나은행 247-910016-79705 으로 계좌이체 하면 되고 대외협력 팀 950-5599/5517 로 문의하면 된다.

## 재미 조영자 동문 1만 달러 이인영 부센터장 5 백만 원 후원

"올곧은 신앙 정신 계승" "학교 재정확보에 소중한 불씨"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조영자 (12 회 ) 동문이 학교 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 라며 미화 1 만 달러 (1 천 318 만원) 를 후원하였다. 조 동문은 지난 13 일 남편과 모국을 방문하였으며 강우정 총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그는 "설립자의 올곧 은 신앙 정신이 계승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국어교육센터 이인영 부센터장도 학교 운영에 사용해 달라며 5 백만 원을 후원 했다. 부센터장은 "소액이지만 재정 확보에 자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일립논총 제 25 집 발간 '성경시험 학습지원 시스템' 등 5 편 수록



「일립논총」제 25 집이 발간되었다. 정해덕, 임지영( 컴소) 교수의 논문 ' 기계 학습 기반 카테고리 자동분류 기법을 적용한 성경시험 학습지원 시스템 '등 5 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단독 저자 2 편과 공저 3 편이다.

강우정 총장은 권두언을 통해 " 우리 대학은 소수의 교수가 보직과 위원회 등 1 인 2, 3 역을 맡는 열악한 연구환경임에도 일립논총이 중단없이 발간하게 됨을 하나님 께 감사한다 "말했다.

「일립 논총」 25 집에 게재된 논문 제목과 저자는 다음과 같다.

- ◆기계학습 기반 카테고리 자동분류 기법을 적용한 성경시험 학습지원 시스템 / 정해덕 · 임지영 · 김용기 · 박수홍
- ◆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학생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지지가 자살 생각 에 미치는 영향 / 김정숙·장인순
- ◆ 장애 조기 발견 및 진단과 조기 개입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내 체계 구 축 / 조윤경
- ◆ 요한복음 축귀부재 / 이민규 · 강태현 · 김성아 · 김소의 · 조성민 · 추요셉 · 최재영
- ◆ 아가서의 우화적 해석의 한계를 넘은 문자적 해석 / 김정원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한생 컬럼 임환석 차장(교학팀)

## 홀로서기

## 왜 인공지능학과인가?

성서인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께 뒤늦게나마 추석 인사를 드립니 다.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추석이었기를 바랍니다.

2022 년 12 월 반도체 인력양성을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화급한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첨단학과에 한해 수도권대학도 교원확보율 만 만족하면 증원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1 년 만입니 다. 1982 년 수도권 과밀화 억제 방안으로 마련된 수도권정비계획 법에 따라 수도권 대학은 정원이 동결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규 제 완화에 따라 올해 3 월 우리 대학은 인공지능학과 (입학정원 45 명 ) 신설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2024 년도에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왜 우리는 인공지능학과의 신설해야 하나?

첫째는 우리 대학은 힘닿는 대로 모든 영역에 「복음전도자」를 내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특정 학문이나 전공은 벽이 될 수 없습 니다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 그 빛은 세상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둘째는 인공지능 분야는 그 방향과 끝을 알 수 없는 무한대이며 따라서 인류의 운명에 잠재적 위험성을 다분히 품고 있는 분야입니 다. 오죽하면 미국의 빅테크 총수들이 美의회에서 이구동성으로 " 우리를 규제해 달라 "는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겠습니까? (조선일 보 2023.9.15.)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고 옳은 방향을 알고 있습 니다.

셋째는 지금 그곳에 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 물리적으로 막 혀 있으면 기다립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 리의 임무입니다 .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허락을 기도 합시다.

이 일을 이끌고 나갈 우리 대학의 지도자들은 강규성 부총장 (단 장 ), 송희경 교수 (자문 ), 최선희 교수 (실무추진위원장 ), 임지 영교수, 권경만 실장 (실무위원) 과 김병수 팀장 (위원 겸 간사) 입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협조를 다합시다.

이제부터 홀로서기에 나서보려 한다 . 자유인이라 할 수도, 그렇다고 거창한 걸 말하려는 건 아니다 . 약간은 낯설기도 하 다. 이제야 홀로서기? 하느냐고 이야기 들을 수도 있다. 그 렇지만 어떤 이들은 혼자라는 단어 그 자체가 너무 쓸쓸하지 않겠느냐며 핵심을 직접 관통해 온다. 홀로서기의 시작, 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현재 고 3 아들이 머지않아 대학에 들어 가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 맞게 될 수많은 시간…. 벌써 한숨이 나온다. 아니, 어쩌면 진즉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 혼자서 밥을 먹고 TV 도 시청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상에 잘 익숙해야 할텐데 아직 은 그리 녹록하지 않아 보인다 . 그렇다고 맥없이 서 있지는 않 겠다 . 홀로서기에 도움 될 여러 컨텐츠는 물론 다양한 일 등도 찾아 나설 것이다. 쉽게는 영화 감상과 책 보는 걸 떠올리고 싶 지만 지루할 것 같고 나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 아니면 이 전부터 해 본 여러 취미에 고개를 돌려본다 . 캠핑 , 차박 , 낚 시, 가끔은 산에 올라 즐기던 등산도 있다. 일정한 시간을 배 치하고 실행하다 보면 나름 괜찮을 것 같다. 물론 이 과정 안에 고독과 함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가끔은 기억을 거슬러 지나온 내 주변의 시간도 들춰 봐야겠다 . 소박하고 흐 뭇함 가득했던 그 시절의 여러 순간 . 가끔은 편치 않은 기억도 있겠지만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라 그립다 . 소중히 간 직하고 싶은 기억을 헤매다 보면 어느 순간 환해지는 스스로에 놀랄지도 모른다.

앞으로 감내하며 맞이해 갈 홀로서기 . 불확실하지만 희노애 락의 흔적이 내 사진첩에 가득 새겨질 것이다 . 먼 훗날 시간의 빛이 다 바래질 때 나의 홀로서기로 남겨질 그림자가 궁금하 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함께 할 단 한 가지, 내 곁에 주님이 동 행해 준다는 사실, 그래서 진정한 홀로서기가 아닐지도 모르 겠다.



**교수 컬럼** 이소정 교수(간호학과)



하늘이 부쩍 높고 파래졌다. 기후 변화로 점점 짧아지는 가을이 지만 잠시나마 계절을 느낄 수 있어 좋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휴대폰과 인터넷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시·공간을 넘어 연결되는 온라인 소통, 관심사를 우선 순위로 알려주는 SNS, 사이버 공간에의 몰입, 인공지능과의 대화 등등 ... 머리를 써서 길을 찾을 필요도 없고, 외국어를 몰라도 번역기로 소통이 가능하며, 문자가 아닌 영상 매체로 정보를 얻으려 한다.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빠르고 편리한 4차산업혁명의 산물들에 습관적으로 익숙해져 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책 읽기를 멀리하고,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는 사이 나도 모르게 뇌를 딱딱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 다시 책 읽기에 드라이브를 걸어보면 책을 읽으면 좋은 점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책을 읽으면 첫째 , 지식의 폐활량이 생긴다 . 지식의 폐활량은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거나 조급해 하지 않고 엉킨 실 타래를 풀듯 다양한 대안을 하나씩 대입하며 해결해 가는 지적 인 내심이다 . 둘째 , 언어의 해상도가 높아진다 . 좋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가 선명하고 좋아 보이듯이 ,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을 구체적인 언어로 다양한 개념을 동원하여 표현할 수 있게 된다 . 셋째 , 분기점의 다양화인데 , 이것은 쉽게 말해 어휘력이 풍부하여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다 . 넷째 , 문해력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다 . 비슷한 주제의 책을 다양하게 읽으며 여러 관점이 모인 지식을 읽어 가면 책 내용을 잘 기억하게 되고 몰랐던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 ,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이처럼 꾸준히 책을 읽고 느끼고 실천할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서 책 읽는 뇌를 만들어 간다면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사람, 세상의 생각, 변화와 흐름을 보다 다양하게 읽어내고 앞으로의 삶 또한 현명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 컬럼** 류가화(가호학과 4)

## 여행의 목적

여행의 목적은 무엇일까? 최근 여행을 다녀오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하니까 행복하다. 그런데 왜 행복할까?'

저는 평소 모든 일에 뚜렷한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저의 평소 모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침에 알람 음 없이 눈을 뜨고서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목적지를 따로 정해두지 않고 발길 닿는 대로 걸어 다니며 주변을 감상하였고,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음식점에 들어가 밥을 먹었습니다. 한번은 데이터가 터지지 않아 지도도 없이 그냥 표지판만 보고 길을 찾기도 했습니다. 원래 저였다면 아마 스트레스 받았을 이런 상황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고 오히려 재밌기도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은 대응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면, 여행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이 새로운 경험과 배움 및 소중한 추억 등을 얻게 해줍니다.

이처럼 여행은 우리에게 배움,에너지 충전,일탈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이번 여행을 통해 여행의 목적은현재에 머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일상에서 느끼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 오직 현재에 집중하게 되는 것.계획이 틀어지는 것도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즐겨보는 것.이것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다시 성장할에너지를 얻게 해 주는 것이 여행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끔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실패와 시련을 마주할 때,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에서 의미를 찾고 기쁨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이 순간을 돌아봤을 때 좋은 여행으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 조 지기 됩니다. 목사 컨텀



성서대학교회 담임

## 한 번에 하나씩

지난 주 장년 수련회를 끝으로 모든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장년부 수련회는 예상보다 인원이 많아 마련한 음식과 좌석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다면 여러가지를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날씨가 좋아 적절한 햇살과 더위로 아이들이 수영과 바이킹을 즐기기에 좋았습니다. 바이킹은 전문 기사가 안내해줘 안전했고 움직일 때마다 아이들의 함성이 포천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작년에 이어 2 회째 진행된 숲속 음악회는 더 나은 프로그램과 연주로 교인들을 흡족하게 해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 가지는 땅벌에 쏘여 고생한 분이 있었는데다행히 순발력 있게 대처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름 내내 수고해 주신 선생님과 교역자 그리고 수련회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여름이 제일 바빴습니다. 6월 성서학당을 끝으로 망설였던 외부 행사를 6월 부터 8월까지 가졌습니다. 6월 말 대학원 종강예배를 시작으로 원장 기도회, 호서대학 집회, 부산 수영로교회와 이태리 집회, 여기에 필리핀 선교까지 여러 사역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이 밀려올 때 배운 원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만 생각하고 처리하는 겁니다. 행사를 마치면 또 다음 일정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다 보니 마음도 가볍고 준비도 순탄하게 이뤄지는 걸 배웠습니다.

학교 설립자인 강태국 박사님의 오래전 설교가 제 삶의 지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분이 평양에서 학교 다닐 때 새벽 교정에 도착하면 안개가 가득해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개 속에 가방을 내려놓고 운동장을 따라 도는데 먼 곳은 안 보였지만 자기 발아래 흰 선은 눈에 보였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 두는 게 아니라 우선 보이는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운동장을 무사히 돌게 되고, 다 돌고 돌아보면 햇살이 비쳐 운동장 전체가 환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선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우리 삶을 안전하게 마치게 될 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안개처럼 보이지 않은 길을 따라 온 제가 지금 그분이 설교해주시던 땅에서 이 글을 쓰고 있으니 하나님의 인도가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다 보여주시지 않으나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보여준 만큼 걸어야 하고 열어준 길로 걸어야 합니다. 길이 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 장 6절)

##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11

##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하나꽃피어 풀밭이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말아라. 네가꽃피고나도꽃피면 결국풀밭이온통 꼭바이되는 거야! 게니!

나하나물들어 산이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말아라. 내가물들고 너도물들면 결국 온산이활활 타오르는 것아니겠느냐.



kim.jeeyoon@joongang.co.kr

'나 하나'라는 말이 '나만이라도'를 만나면 소신이 된다. 나 하나 꽃 피면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고, 나 하나 물들면 온 산이 활활 타오른다. 나만이라도 빛이 되면 어둠을 물리칠 희망이 되고, 나만이라도 소금 되면 부패를 말을 수 있는 워돌력이 되다

\_\_그러나 '나 하나'라는 말이 '나 하나쯤이야'를 만나면 비겁이 된다. '나 하나쯤이야'에 숨겨진 자신 혹은 상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은 풀 밭을 병들게 하고 온 산을 황폐하게 하고 결국 산천은 허허벌판이 된다.

'나만이라도'를 선택해 소신껏 살아갈지, '나 하나쯤이야'를 선택해 비 겁의 삶을 살아갈지, 선택은 삶을 대하는 '나'의 소견에 달려 있다.

## 넝마주이 (The Ragpicker 1869)

에두아르마네 (Edouard Manet 1832~1883)

https://en.artsdot.com/@@/8EWFNJ-Edouard-Manet-The-ragpicker



마네의 첫 그림은 뉴욕메트로폴리탄 미 술관에서 본 뱃놀이라는 그림이었는데 그 와 모네를 혼동하였습니다. 운명적으로 그 림에 빠지면서 이름 비슷한 화가 때문에 기 억 장애를 일으킬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네 (Monet) 와 마네 (Manet) 그리고 밀레 (Millet) 인데 모두 프랑스 화가로 인 상주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실제로 마네 는 대중이 자신과 모네를 구분 못 하는 것 을 불편해하였습니다. 마네는 금수저 출신 입니다. 아버지는 법관이고 어머니가 왕족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는 데 본인은 부모의 기대와 관계없이 그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네의 그림은 한 결같이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거 리나 공원, 바다에서 흔히 볼 대상을 화폭 에 담아냈는데 자신만의 색채와 느낌을 때 로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표현, 대중에게 큰 충격을 준겁니다.

이 그림은 캘리포니아 파세데나에 있는 어느 미술관에서 봤습니다. 제목은 '넝마 주의'로 설명하는 글 속에 오늘날의 노숙 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 다 시 제 눈에 띈 이유는 아마도 나이 때문일 겁니다.

한쪽으로 약간 굽어진 어깨와 찢어진 바 지 그리고 곧게 설 수 없어서 살짝 휘어진 두 다리가 보입니다 . 그의 두 손에 잡혀 있 는 넝마와 지팡이만큼은 절대로 놓을 수 없 다는 굳센 의지가 보입니다. 지팡이를 움 켜쥔 손은 유난히 단단해 보입니다. 모자 에 가려진 그의 눈을 보고 싶어서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납니다 . 눈을 보지 않고 그 내면을 말하기 어렵지만 그의 눈은 정면 을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 그는 뒤나 앞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은 삶을 생각 하는 것도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아 닌 현재를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끝이 있 는 삶에서 현재가 가진 의미가 뭔가를 상상 하는 듯한 눈 입니다 . 앞으로 향하거나 아 니면 뒤로 돌아갈지 엉거주춤한 다리와 지 팡이를 표현한 마네의 색깔이 유난히 깔끔 하게 보입니다. 그 깔끔함이 노인의 고독 을 더 크게 보여줍니다 . 시인의 고백이 생 각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 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71:18절)



에두아르 마네의 <del>죽음은</del>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del>죽음은</del> 숨겨진 삶의 한 단면을 드러냅니다. 지병인 매독 후유증으로 손발이마비되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다리까지 절단

하고 그 후유증으로 51 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복음의 이야기와 함께 늘 삶의 윤리를 언급할 입장에서 마네의 죽음을 미화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5

### 대학어린이집



▲ 할아버지가 영유아에게 함께 만든 송편을 나눠주고 있다.

## 조부모님과 함께하는 '민속의 날'

대학어린이집에서는 지난 19일' 조부모와 함께하는 민속의 날'행사를 개최하였다. 참석을 신청한 조부모와 함께 송편 만들기, 팽이 꾸미기, 전래 동화 감상하기 등의 활동이 진행되었다. 유아들은 조부모가 들려준 전통 명절인 추석의 의미를 배우고 다양한 놀이를 통해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가졌다. 교실 활동 후에는 한국성서대학교 재학생의 재능 기부로 해금 연주를 감상하였다. 이어서 전래 민요'아리랑'과 동요'모두가 꽃이야'를 감상하였고 해금 연주 체험까지 즐기며 음악의 세계 안에서 세대를 넘나드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조부모들은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행복했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라며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사랑반 정미옥 교사]

### 월계종합사회복지관



▲ 지역 어르신들이 경기도 광주의 화담숲에서 문화활동을 가졌다 .

## 화담숲 관광

지난 9월 14, 15, 20일에 경기도 광주 화담숲으로 문화 활동을 떠났다. 노인일자리에 참여 중인 303명에게 사기 증진 및 일상의 기쁨 등을 전하기 위한 자리다. 오전 9시 버스로 이동하여 점심을 나눈 후 목적지인 화담숲에 도착하였다. 입구에 자리한 소나무 형상에서 기대감을 드러냈고 곳곳마다 수목과 자연이 빚어낸 절묘한 조경에 모두는 감탄을 연발하였다. 모노레일 에 탑승하여 멋진 경치를 담았고, 해설자에게서 화담숲의 궁금한 점을 질문 하며 정상에 올랐다.

조별로 미션지에서 사진을 찍고 숲이 보여주는 최고의 절경에 일상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참여자들은 "최고로 멋진 곳에서 예쁜 추억을 담아간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내년에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건강한노후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팀/윤수연사회복지사]

## 꿈빛어린이집



▲ 학부모들이 자녀의 놀이 양육 정보에 대한 교육을 수강중 이다 .

## '부모양육태도 점검 – 자녀 놀이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 찿아가는 공통부모교육

지난 9월 12일 ' 부모양육태도 점검 - 자녀 놀이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라는 주제로 부모 교육을 진행하였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놀이 양육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관련 주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은 '민감하게 놀기, 반응하며 놀기, 즐겁게 놀기 ' 등 놀이를 통해 자녀의 적응과 행동의 적극성 및 정서적 반응 정도 등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자녀에게는 가르침보다 온전한 즐거움을 주는 교육놀이효과와 부모의 언행과 보조역할에 대해서도 교감을 넓혀갔다.

부모들은 교육을 통하여 평소 자녀와 놀이하며 느낀 어려움이나 고민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바른 부모 역할과 창의적인 자녀 양육 등에서 많은 정보와 중요성을 인식시켜 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리반 전보람 교사]

## 성

### 성서대학교회



▲ 추계부흥성회에서 노창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추계부흥회 . 강사 노창수 목사

성서대학교회는 22 일 금요기도회를 시작으로 23 일 토요일 새벽과 저녁, 주일 1, 2, 3부 예배를 추계부흥회로 진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강사는 미국 남가주 사랑의교회 담임 노창수 목사 . 노 목사는 부흥회 주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하트 '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였다 .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한 신앙인으로서의 사명과 삶의 실천 그리고 천국 소망의 마음을 전파하는 성서대학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 줄 것을 전했다 .

성도들은 이번 부흥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 인토록 하고 거룩한 신앙인의 의지를 다져준 복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오종철목사]

## -

## 상계백병원어립이집

## 사 장 최우수상 상제택생원 이란이집 등 트로그램병: 다음 이를 위 어린이집을 「2023년 제3회 보육 공모전」 '1분 행화제 부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는) 상황을 수여합니다. 2023년 8월 31일 나 만한국어란이집총연합의 심 정

▲ 1 분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1 분 영화제] 부문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보육공모전

지난 8월 30일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은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연합회가 주최하는 보육공모전「1분 영화제」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제목은 '다울 이음'이며'함께 사는 우리'의 뜻으로 어린이집에서 동시를 만든 내용이 담겨 있다. 동시는 박빛나 원장이 일부를 짓고 부모와 교사가 완성하였다. 아이들은 영화에 출연해 함께 협력해 가는 상계백병원 어린이집의 희망찬 모습을 담아냈다.

교사들은 공모전이 우리 어린이집 모두가 이뤄낸 기쁨이라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더 노력하여 아이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전하였다. 동시 짓기에 참여한 학부모들도 "노력한 결과가 아름답다"라며 축하를 전하였다. [ 맑은반 교사 이진아 ]

##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



▲ 부모가 자녀를 함께 키워가자는 부모교육의 장면

## 독박육아 NO! 함께키움 YES!

' 독박육아 NO! 함께키움 YES!' 부모 교육을 지난 16 일과 23 일 한국성 서대학교에서 3 회차로 진행되었다. 부모 교육은 토요일 이뤄지며 온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1 회차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 증진 놀이 체험이었고 엄마는 감정 코칭 부모 교육을 받았다. 2 회차는 역할을 바꿔 엄마와 자녀가 관계 증진 놀이를 경험하고 아빠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상호작용방법에 대한 양육코칭을 받았다. 3 회차는 10 월 14 일 (토) 숲 체험 지도사와 함께 온 가족이 즐거운 야외 숲속으로 옮겨 자연을 공감하며 관계 증진에 대해 경험하게 된다.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남편까지 참여해 좋았고 육아에 실제적인 도움은 물론 끝난 후 아이와 잔디밭에서 놀며 산책할 수 있어서 흐뭇했다"며 만족감을 표현해 주었다. [이은경 보육전문요원]

## 상계 5 동어린이집



▲ 영유아들이 추석에 맞춰 예쁜 한복으로 자태를 뽐내고 있다.

## 보나 민속의 날

지난 20 일 추석을 앞두고 '보나 민속의 날 '을 가졌다. 영유아들은 고운 한복을 입고 등원하여 명절 분위기를 높여갔다.

놀이는 각 코너별로 진행되었는데 줄다리기, 비석치기, 투호 던지기, 제기 차기, 팽이 돌리기 등의 다양한 전통 놀이를 재미있게 즐겼다. 쌀 과자에 조청을 바르고 튀밥을 묻혀 만든 한과 만들기와 자개 스티커를 이용한 전통 거울, 학부모가 직접 공연한 전통 인형극 등의 놀이도 색다른 기쁨을 안겨 주었다. 각 코너에서는 학부모들이 1일 교사로 참여해 함께 즐기며 분위기를 더욱 높여 주었다.

부모들은 교사들의 노고를 새삼 느껴 볼 수 있었다며 수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을 함께 즐기며 추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초록풀잎반 강혜진 교사]

### 늘사랑어린이집



▲ 추석 행사로 즐거운 명절놀이를 즐기고 있는 유아들

## 추석 행사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26 일 어린이집 내에서 추석 행사를 진행하였다. 영유아들은 명절 분위기와 놀이가 접목된 다양한 전통 놀이와 맛있는 간식 만들기에 모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전통과 놀이를 접목한 튀밥 오감 놀이, 쌀가루 반죽 놀이, 다식 만들기와 맛깔스런 전 부치기 활동도 재미있다며 과정을 자세히 배웠다.

영유아들은 재미있는 명절 놀이문화에서 추석이 가져다 줄 결실의 풍성함과 가족 간 사랑에 대해 배우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즐겼다.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린이집 커피차로 커피를 나눔하고 영유아가 직접 만든 다식을 가정으로 배부했다. 평소 고마웠던 분들께 사랑과 감사를 전한 즐겁고 풍성한 추석행사가 되었다. [즐거운반 김한솔 교사]

##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 기부기간 2023년 7월 21일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_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 Wire Transfer: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384 048 3592 \_ Routing No,: 121 000 248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 접 수 처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조영자(12회 강우정.강 진(총징 재단법인 보건장학회 이인영	1,318만원(운영) t) 612만원(운영) 500만원(장학)	아산사회복지재단 한국장학재단 벧엘성서동우회 대한시스템 유한회사 이례장학	150만원(장학) 105만원(운영) 10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구좌 구본길 심인자 심희남 오채엽 이광삼 조유민 채유신  3구좌 태지선  4구좌 신은진  5구좌 김 진	8.3구좌 벧엘성서동우회 10구좌 김장교 재학생 및 가족 1구좌 황미숙 5구좌 김성안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이정은 진달래 10구좌 이민규 이레교회 1구좌 이채은 일 반 1구좌 안애숙	2구좌 행복한교회  단체 및 기관  3구좌 주식회사 이수전기  10구좌 소망교회					

### 기부자 명단

### 동문 및 가족 5천원 김샛별 김시내

1만원 강나경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솔 강옥경 강재현 강정민 강주옥 강춘자 고대운 고성호 고재민 곽미화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권순실 권순웅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지연 권희조 금동옥 금필규 김가영 김노아 김다예 김도훈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엘 김민정

> 김순녀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김요셉 김유미 김유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정희 김지선 김진숙 김진영 김춘덕 김태용 기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남범수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도 만

김믿음 김병렬 김선근 김선태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수정

류요한 류한나 류희정 마효정 문기철 문성령 문정혜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경옥 박명우 박성준 박수진 박순임 박이론 박윤복 박재숙 박재신 박종주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희 배창경 배증수 백명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규원 서성식

서유미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진규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종수 신지은 신혜영 심두한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양혜영 엄미자 엄보라 엄보영 연현숙 오세천 오채엽 용이름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수정 유영진 유주연 유주홍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현중 윤혜자 이근중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준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종근 이주희 이진경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해렬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진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인남연 인산일 인은성 인은지 임찬웅 장윤국 장익봉 장익심 장희남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보람 전상호 전이름 전이영 전한나 정금숙 정다연 정다운 정선도 정소윤 정영교 정윤미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조소연 조수빈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주민자 주영덕 주진우 지영화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윤석 최인호 최종운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하수현 하 진

송바울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허영숙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황승호 강해든이 설에스더 신에스더 열매맺는교회 황보혜영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고난홍 구본길 구연민 국소영 기정민 길득희 김미나 김미향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김열매 김영래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재원 김재현 김정복 김중재 김지원 노민지 류충열 박문홍 박상수 박재송 박주영 박혜숙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인성 신정섭 신화영 안선례 유미영 유의숙 윤광길 이기주 이마리 이상복 이선영 이영림 이영애 이우진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이재은 이정목 이종임 이축희 이한볔 이현우 임수정 임은희 임주영 장은경 장재경 장재원 전영희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은별 주성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추하은 탁명화 탁윤석 하지혜 허춘선 홍혜주 황인숙 황형록 등대교회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3만원 고은영 공복순 공지은 구예은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세련 김윤정 김재임 민승철 박기혁 박<del>문용</del> 반세호 배예진 성인선 손승현 양연선 우종엽 유이랑 윤문순 이길순 이남희 이다윤 이성은 이언나 이영섭 이윤성 이주연 이현지 임연식 전지혜 정슬기 조은경 조하은 최선경 최소린 최양서 탁현정 태지선 황영숙

4만원 김민지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윤서희

5만원 김기숙 김동완 김준오 김 진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인순 서명주 송복순 신상춘 양연주 유양숙 이광삼 이기훈 이병철 이부호 이영삼 이지은 천유림 최경환 최송희 가학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생명

6만원 장영훈 정동주

10만원 강경옥 김동관 김선옥 김장교 김종숙 김진만 류종주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11만원 유선미 12만원 성낙표

15만원 박광필 박빛나 100만원 이례장학 105만원 벧엘성서동우회

1318만원 조영자

### 재학생 및 가족

5천원 마다현 박효림 이다빈 이하은 정은우 최윤서 홍예지 1만원 권명희 기병문 김민서 김선경 김양순 김예은 김은주 김혜미 선동하 선유정 심희정 양은성 양주향 엄희지 이동기 이성란 이은수 이향기 이혜정 임동화 장연정 전계화 지중배

기부자 명단

기부자 명단								
2만원	김선옥 김애선 김창환 김형태	2만원	진양희 홍옥주	1만원 윤	<del>2</del> 무표		황영수 하늘사랑 위샐러듀	
	박명규 송동식 송세희 신한우		권효진 김미화 문유나 박천순	2만원 금	금촌성서교회	2만원	강명옥 길옥석 김동석 김성래	
	연성희 이미영 이은영 이진아		안미희 유정현 장윤정	3만원 타	il광성서교회 푸른동산교회		김윤숙 서병준 서성원 이관헌	
	장영순 전옥순 조복임 조율이	4만원	박미선	5만원 동	· 동두천성서섬김교회		이일신 정주아 조혜령 최국열	
	천광호 함은애 황미숙	5만원	박연희 신영자 이인경 이지연	일	일동성서교회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3만원	배정숙 송의택 안태유 윤성준	6만원	장나혜	10만원 디	나빛교회 삼일성서교회		행복한교회	
5만원	김선주 김성안 박선희 안종헌	10만원	권정아 장수진 조지선	수원교회		3만원	김종환 장문석	
	이재현 정미영	15만원	김화영 지주나	1만원 깅	방동형 김일섭 홍성호	3만5천원	박은영	
9만원	홍석영	20만원	김신덕 차 건	어린양교회		4만원	정형채	
	김명자	35만원	오동준	1만원 김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30만원	박지홍				김 웅 박우람 한지화		평화의교회	
		권선제일교회			l윤창 어린양교회		서미혜 정동환	
교직원 및 기			이상규	7만원 0	l정선		류동원 박경혜	
1만원	강신애 곽한나 권관희 김미영		권선제일교회	이레교회		30만원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동광교회		1만원 손	일	500만원	재단법인 보건장학회	
	김애란 김유진 김종현 김지성		김복례 한미희 배 윤.김현진	장자교회				
	김지환 김지효 김춘하 김형중	밀알교회	11==1	4만원 권		단체 및 기관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서효정	5만원 징	당사교회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박연지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삼일성서교회		주향교회	OHO		늘 <del>푸른</del> 교회	
	심평강 양승원 유성준 윤명섭 이문자 이은영 임수아 장경순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한금순	1만원 유			마키즈푸드/목양교회	
	전광선 전귀선 정현이 지수빈	서문교회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2만원 정 3만원 주			무진인터내셔날 주님손교회/행복한교회	
	진달래 허윤민 요시다고조	1만5천원	o		당짜회	OLIGI		
2미I-의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구자람		성신구 서문교회	중앙성서교회	막 해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2인전	(주)삼삼전기관리공사 (주)에이스외식산업	
200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봉재	성서대학교호			에 함세한 함정의 이중의 비태학 최영란		도새기짱/동신자원	
	김세원 김장호 문지예 민경은		박용숙		기에 각 작용한 신영옥 우용식 이수병		바르고복된교회/열방교회	
	박은주 박태용 배민정 안 호		막규상 박태수 이 천 정갑순		당영애.신한성 이 <del>준구</del> .안춘자	3마워	꿈꾸는교회/우리교회	
	오철송 유성현 장길정 장지순	OLL	황성모		일순호 김덕규 오근수	022	의정부좋은나무교회	
	전영호 정순애 정은상 조철남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님옥자 김종구 이경식 한금례		주식회사 이수전기	
	최난영 한상만 한정숙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중앙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		한길교회(김오권)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박인혁 방진희	1만8천원	고경숙 권정화 김덕현 김동석		로회	4만원	플랜팅시즈	
	신재윤 양희정 유다운 유수연		김문정 김배열 김상은 김성은A	10만원 김	김용철 송인숙 현희철	5만원	다드림교회	
	윤혜진 정지용 추연진		김성진B 김성철 김애숙 김영숙	/-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미사목민교회	
4만원	김덕원		김유미 김은미 김인영 김일선	12만원 홍	방인돈.김순자		본도시락 중계점	
5만원	구광면 김병수 김성호 김원빈		김지윤 김진철 김향순 김현미	15만원 0	비혜선		사랑샘교회/상일교회	
	김현동 신지수 양단아 유미나		김희자 김희현 박상희A 박영숙	48만원 중	등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예일에드컬/천성교회	
	이상일 장정순		박영신 박은선 박주형 서 훈	퇴계원제일교회			행전교회	
	권순범		서영우 서윤희 석경순 송형기	1만원 유		10만원	(주)바다나라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곽규상 김덕현		안봉숙 안영숙 양태환 오경모		티계원제일교회		(주)이레E&C이레디자인	
	김도경 김성경 김소희 김승호		오종철 윤재필 이관영 이길우	평원교회	ledel.		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이봉호 이소정 이승림 이영희	1만원 성	성경아		구리중앙교회/대광교회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이정숙 이정자 이종옥 이주현	평화교회	JED OF U		도봉성산교회/두암산업(주)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오은주		장근문 장진희 장홍림 조영희		난종민 안지선		상록교회/서부중앙교회	
	원영희 유정선 이민규 이소정 이슬기 장성희 장인순 조현진		조현진 최영태 최용석 최인숙 하은희 한성실 허진순	풍암교회	유금례 윤은정		성복중앙교회/소망교회 철원제일교회/청평교회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육열	2마7처위	이는의 인상을 이신군 김영헌 유상호	기진전 ㅠ 함평대동교회	T급데 판단'Ö		글전제글교회/성당교회 평안교회(신병수)	
	최은희 현우석 홍소윤		강유진 고미숙 김미낮 김인자	1만원 김	니 희경	20만원	(주)소원기건/만나교회	
	김정원(신) 김정원(영)	02022	김춘환 박 선 박선하 박성환		1-10		한민제일교회	
11만원	최지은		박온유 유정선 유중엽 이경신		인경숙 진 <del>은</del> 숙 홍성일		동서환경(주)	
100달러			이영진 조정선	일반			대한시스템 유한회사	
	김중완 한진호	4만5천원	김동선 유형창		꾸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한국장학재단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5만4천원	김문응 김현석 민윤옥 이숙영	긷	김대석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300만원	이산사회복지재단	
	안정선 이한영	7만2천원	이윤봉	긷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20만원	김승옥 김창원 박 선 박태수	9만원	강성훈 권태완 길용희 김원태	긷	김천수 김희권 노은경 문해영			
	이성아 정해덕 정휘진 조윤경		박세건 박온오 이은실 이정임		<b>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b>			
	이강동 임지영		최강희 최대만 최순남 최정권		나해숙 <del>송수용</del> 안애숙 오미라	소계(202308	321~20230920)	
	최선희		하가람 한진호		2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해연		101,658,331	
500만원		12만6천원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이민우	누계(202203	301~20230920)	
612만원	강우정.강 진		허에스더		시사랑 이성영 이성희 이우윤		448,574,802	
HARIT		21만6천원			l원주 이유진 이현수 임숙자			
부설기관	기우즈 기우리 기타이 기근되	27만원			당명웅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1만원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김효진 임재택 최영운 호한나	3429만원 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		도여원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티범식 최서영 최은실 한춘경			
	마세국 파이正 오인다	8시간파외		2	-1급 -1 의사당 의근을 인군경			
	서대학교 9월 『 <b>발전후원</b>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15,500,000원)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15,500,000원)

김조자 (교직원) 10,000,000 / 이인영 (교직원) 5,000,000 / 오윤선(교직원) 400,000 / 김명자(재학생) 100,000

**약정 후원자** (합계 12 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1.600.000원)

 5구좌 이영삼(동문)
 /
 3구좌 신작교회(동문)
 /
 2구좌 정복자(재학생)

 1구좌 김효진(동문)
 이은광(동문)
 최영운(동문)
 황미숙(재학생)

일시납 누계 (2023. 3.1~9.17) 57,190,000원 / 약정자 누계 (2023. 3.1~9.17) 152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18,240,000원)



# 24학년도 전기 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 K선교 시대를 열어갈 **초교파 복음주의** 전문 인력 양성

교회와 일터 현장을 위한 전문평신도 · 예비목회자 모집 직장인을 위한 신대원, 여성목사 안수 가능

모집학과 

진학대학원 목회학 석사(M.Div)

학업,일 병행 ◎ 주3일 수업(야간 2일 대면, 1일 비대면)

오랜역사 ◎ 북서울 유일 초교파 복음주의 신대원

장악금 
 □ 매학기 다양한 장학 혜택

접수기간 💿 23.11.13(월) ~ 11.17(금)

입학문의 💿 02-950-5456, 5464

편리한교통 ◎ 7호선 중계역(한국성서대역) 1번출구 도보 3분